

#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대학일자리센터의 고용효과 및 정책과제\*

이성희 · 오선정\*\*

대학 청년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취업지원 효과 분석을 토대로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 과정을 직업노동시장 수요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기업의 필요에 맞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고용정책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취업준비생이나 취업을 포기한 NEET(취업과 교육 훈련 포기자) 등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 고용률(15~29세)은 40~42% 수준으로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청년 실업률은 하락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 취업난이 극심하고,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25~26%로 청년 1/4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학 졸업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으

\* 이 글은 이성희·오선정(2021), 『대졸 청년들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이행방안 연구: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의 내용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 이성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musedori@kli.re.kr), 오선정=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unjongoh@kli.re.kr).

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졸업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효과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졸 청년들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 지원방안이 절실한 정책과제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청년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대표적인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대학의 대표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취업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청년들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이행 촉진방안을 도출하였다.

## II.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고용서비스사업 운영현황

### 1.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현황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에서 산학협력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LINC+ 사업으로 진화하여 5년 동안 추진되어 왔다.

LINC 사업은 산학협력 친화적인 대학을 만든다는 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표 1〉 4년제 대학 LINC 사업 주요 성과(2012~16)

지표명	사업의 개시 전(2012. 2)	2016. 2.
산학협력 실적의 연구실적 대체(비율)	70%	91%
현장실습 학생의 수	1.2만 명	4.0만 명
캡스톤 디자인 과정 이수 학생의 수	4.2만 명	9.4만 명
산업 수요 맞춤형 교과	670건	1,906건
창업강좌 시수	41시간	108시간
공동 활용 연구장비의 운영수익	235억 원	344억 원
가족회사의 수	2.4만 개	5.7만 개
기술 이전의 건수와 수입	603건/104억 원	2,578건/295억 원

자료 : 이윤옥(2017),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 산학협력 고도화형을 중심으로」, 『THE HRD REVIEW』 2017년 1월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왔다. LINC 사업을 통해 대학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분야를 개발해 자체적인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7년부터 LINC<sup>+</sup> 사업으로 진화하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으로 청년 취업과 창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산학협력을 다양화하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공학계열 중심의 산학협력에서 여러 산업 분야로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의 범위를 넓혔고, 산업체로만 한정되었던 산학협력 사업 범위를 지역사회로까지 확장시켜 왔다. LINC<sup>+</sup> 사업은 크게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학협력 고도화형 LINC<sup>+</sup>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은 4년제 국·공립 및 사립 대학 가운데 55개교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며, 2+3년으로 구성된다. 사업비는 2020년 기준 총 242,181백만 원으로 한 학교당 약 4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러한 LINC<sup>+</sup> 사업 참여 대학에서는 다양한 산학협력 인력양성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능력을 지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 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업역량 강화,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내 분절된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일원화하고 기능적으로도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을 지원해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대학 내의 경력개발센터나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커리어개발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관련 부서를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대학 내 장소 여건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의 고용(복지+)센터와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나 지역산업계 등과의 연계·협력으로 지역청년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단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진로지도 관련 교양·전공 필수교과 운영을 담당하고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교수, 교직원 및 컨설턴트 대상의 자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때 적성과 전공을 고려하고 직업심리검사 및 역량진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을 지원한다. 그 밖에 진로지도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으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청년지원 사업과 훈련의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더불어 지역 내 고용센터,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에 있어 핵심 전달체계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주기적인 협의체 운영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요·공급 관련 협업이나 정보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총 84개교로 대형 40개교, 소형 44개교이다. 대형과 소형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사업비가 연간 6억 원 내외인 곳은 대형, 연간 2억 원 내외인 곳은 소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형 센터라도 재학생 수가 5,000명 미만인 대학은 연간 사업비가 5억 원으로 감액 지원된다. 사업비는 고용노동부가 50%,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50%를 부담하는데, 대학과 자치단체 사이의 비율은 자치단체가 반드시 일부를 부담하는 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대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가운데 일부(1억 원 이상)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나 제안, 아이디어 접수를 받아 선정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활용한다.

### Ⅲ.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고용서비스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1.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고용효과

LINC 및 LINC+ 사업(이하, LINC와 LINC+ 사업을 동시에 의미하는 경우 LINC 사업으로 일괄 지칭)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대학 졸업생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대학과 비참여 대학의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을 비교 분석하였다<sup>1)</sup>. 취업률 자료

- 1) 취업을 분석 시 대학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 추세, 대학 특성변수 등을 통제한 단절적 시계열 디자인을 이용하여 LINC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취업률 변화와 참여하지 않는 대학의 결과를 비교하였고, 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beta_1 L_{i,t} + \beta_2 T_t + \beta_3 C_{i,t} + \beta_4 L_{i,t} * C_{i,t} + \beta_5 Z_{i,t} + \theta_i + \delta_t + \epsilon_{i,t}$$

$y_{i,t}$ 는 분석에 따라 대학  $i$ 의  $t$ 연도 취업률이나 유지취업률 1, 2, 3, 4이고,  $L_{i,t}$ 는 대학  $i$ 가  $t$ 연도에 2012~13, 2014~16, 2017~18, 2019~21년의 LINC 사업에 각각 참여하는 경우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T_t$ 는 결과변수의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한 선형추세로  $t$ 연도에 따라 1씩 증가한다.  $C_{i,t}$ 는 대학  $i$ 가  $t$ 연도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1의 값을 갖고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통제변수 벡터인  $Z_{i,t}$ 는 대학의 관측 가능한 특성변수로 학부 입학정원, 전임교원 수,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재학생 총원율 및 중도탈락비율이 사용되었다. 대학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epsilon_{i,t}$ 는 학교 수준의 군집 강건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와 통제변수로 사용된 대학 특성변수는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사이트에 요청한 2011~19년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유지취업률은 취업통계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3, 6, 9, 12개월)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대학의 진로 인프라 분석 시에는 교육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사하는 2019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를 사용하는데, 이 자료는 2017년부터 존재하여 성향점수 매칭으로 LINC+ 사업의 효과만을 분석한다.

〈표 2〉와 〈표 3〉은 각각 LINC 사업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대학은 LINC 사업 참여 대학과 미참여 대학을 모두 표본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이며 참여 대학만을 분석한 결과도 구분하여 제시한다. 〈표 4〉는 LINC+ 사업이 대학의 진로 인프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2〉~〈표 4〉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대학의 LINC 사업 참여가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와 대학의 진로 인프라 확충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분석 결과별 요약과 각각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2〉와 〈표 3〉의 분석결과 비교 시 LINC 사업 참여의 취업률 제고 효과는 4년제 대학의 취업률 지표에서 주로 나타나며, 일자리센터의 취업률 제고 효과는 전문대학의 유지취업률 지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노동시장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

〈표 2〉 LINC 사업이 취업률에 미친 영향: 4년제 대학

	취업률		유지취업률 1		유지취업률 2		유지취업률 3		유지취업률 4	
	(1)	(2)	(1)	(2)	(3)	(4)	(5)	(6)	(5)	(6)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LINC	1.435** (0.617)	1.388** (0.573)	0.247 (0.390)	0.664 (0.423)	0.080 (0.462)	0.550 (0.471)	-0.015 (0.478)	0.583 (0.446)	0.572 (0.520)	1.070** (0.483)
선형추세	-0.717** (0.324)	-0.964** (0.418)	-1.042*** (0.364)	-1.011*** (0.293)	-1.150*** (0.392)	-0.705** (0.303)	-1.398*** (0.425)	-0.490** (0.234)	-1.254** (0.490)	-0.435* (0.250)
일자리센터	-0.479 (0.687)	0.209 (0.857)	-0.453 (0.626)	0.186 (0.733)	-0.382 (0.668)	0.599 (0.750)	-0.522 (0.673)	0.412 (0.799)	0.136 (0.717)	0.749 (0.884)
LINC* 일자리센터	-1.107 (0.921)	-1.537* (0.802)	-0.222 (0.510)	-0.928 (0.588)	-0.029 (0.586)	-0.974 (0.591)	-0.098 (0.646)	-0.485 (0.652)	-0.522 (0.750)	-0.753 (0.743)
N	1,511	675	1,477	674	1,477	674	1,308	594	1,308	594
대학 수	201	86	198	86	198	86	197	86	197	86

주: 1) 유지취업률 1, 2는 2012년부터, 유지취업률 3, 4는 2013년부터 발표되어 관측 수에 차이가 있음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대학특성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대학알리미 원자료.

〈표 3〉 LINC 사업이 취업률에 미친 영향: 전문대학

	취업률		유지취업률 1		유지취업률 2		유지취업률 3		유지취업률 4	
	(1)	(2)	(1)	(2)	(3)	(4)	(5)	(6)	(5)	(6)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전체대학	참여대학
LINC	0.126 (0.423)	0.648 (0.452)	-0.012 (0.307)	-0.081 (0.316)	-0.075 (0.332)	-0.066 (0.321)	0.093 (0.299)	0.057 (0.292)	0.058 (0.336)	-0.027 (0.372)
선형추세	0.158 (0.364)	-0.348 (0.336)	0.328 (0.275)	0.176 (0.265)	0.518* (0.299)	0.432 (0.393)	0.686* (0.363)	0.557 (0.386)	1.019*** (0.321)	0.909** (0.388)
일자리센터	-0.208 (0.511)	1.015 (0.884)	2.111** (0.891)	-0.252 (0.634)	2.219** (0.945)	-0.000 (1.367)	1.725** (0.799)	0.446 (1.317)	2.067** (0.875)	0.779 (1.282)
LINC* 일자리센터	-0.093 (0.771)	-1.506 (0.976)	-0.641 (1.063)	1.065 (0.794)	-0.364 (1.174)	1.104 (1.413)	-0.415 (1.041)	0.408 (1.345)	-0.769 (1.140)	0.022 (1.311)
N	1,247	557	1,165	535	1,165	535	1,032	472	1032	472
대학 수	162	70	159	69	159	69	159	69	159	69

주 : 1) 유지취업률 1, 2는 2012년부터, 유지취업률 3, 4는 2013년부터 발표되어 관측 수에 차이가 있음.

2) \*, \*\*, \*\*\*는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대학특성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 대학알리미 원자료.

으로 보인다. 취업률 추세변수의 추정치에서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전문대학에 비해 매우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는 현재 4년제 대학생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과거에 비해 훨씬 경직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수요가 큰 전문대학 졸업생에게는 대학일자리센터의 고용서비스가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여 취업을 제고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년제 대학생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수요가 이미 빠르게 감소하여 현재 수요가 작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중요시하는 LINC 사업 자체가 노동시장 수요를 추가적으로 창출하여 구조적 실업을 해결함으로써 취업을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표 3〉에서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이 아니라 유지취업률에서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을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초과수요가 있는 전문대학생의 경우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한 고용서비스가 더 나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매칭을 통해 취업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표 2〉에서 4년제 대학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LINC 사업의 취업률 제고효과가 나타나지만 유지취업률 제고에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산학협력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취직한 4년제 대학의 졸업생이 기대와는 다르게 장기 근속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산학협력을 통해 창출된 추가적인 일자리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결과는 4년제 대학 산학협력의 질이 높지 않다

〈표 4〉 LINC+ 사업이 대학의 진로 인프라에 미친 영향

변수	ATE	ATE	ATE
	일반대학+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진로 및 취·창업 전체 조직 수	0.917 ***	1.371 ****	0.283
	0.240	0.294	0.233
진로 및 취·창업 전체 인력 수	5.979	7.079	2.414 ***
	3.717	4.561	0.770
진로 및 취·창업 전체 예산 규모	182.852	178.257	119.884 ****
	266.2276	358.199	46.145
진로 및 취·창업 총 개설 교과목 수	24.467 ***	22.175 ***	21.891 ***
	4.969	7.615	8.441
진로 및 취·창업 개설 프로그램 수	24.545 **	28.124 *	0.897
	10.887	13.130	2.323
진로 및 취·창업 지도교수제 유무	0.104 ***	0.714	0.081 *
	0.038	0.789	0.482
대학진로체험 학점제 운영 여부	0.008	-0.036	-
	0.354	0.648	-
취·창업 지원 온라인 시스템 운영 여부	0.710 ***	0.093 ***	0.051 *
	0.222	0.027	0.290
취업처와의 네트워크 개수	0.763 ***	1.121 ***	0.152
	0.188	0.196	0.291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개수	0.892 ***	1.036 ***	0.737 *
	0.256	0.265	0.411
졸업생 네트워크 개수	0.755 ***	0.993 ***	0.596
	0.252	0.249	0.408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2019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원자료.

는 것을 의미하거나, 대학의 LINC 사업 참여 자체가 단기적이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대학과 기업체 사이의 장기적 협력이 있어야 수준 높은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대학의 진로 인프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이 LINC+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기존 진로 및 취·창업지원 조직의 다양화 및 세분화에 집중하며, 전문대학에서는 기존 조직에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문대학에서 기존의 관련 인력과 예산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는 산학협력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문대학에서도 장기적인 산학협력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표 3>에서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률 제고 효과가 유의미한 전문대학에서도 LINC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간 교차항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전문대학 전체의 평균 수준에서는 두 가지 사업에 동시 참여하는 대학에서 두 사업 간 연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업별 정책 목표는 다르지만 두 사업이 대학의 취·창업 관련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는 정책적 장치가 있다면 취업률 제고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성공사례

### 가.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성공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sup>+</sup>)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통해 대학생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방향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고자 4년제 대학 5개교와 전문대학 2개교를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sup>+</sup>)의 취업능력 제고방안을 찾기 위해 LINC<sup>+</sup> 사업 평가가 우수한 대학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산학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과과정 운영, 산학협력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등 성공사례를 분석해서 대학생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가 우수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중 학생 취업능력 제고에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효과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 나. LINC<sup>+</sup> 사업 성공사례의 시사점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학협력 참여 기업들과 협력해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LINC<sup>+</sup> 사업 성공사례 연구에서도 산학협력 협약기업들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선발해서 협약기업의 특성에 맞는 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대학생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성공사례는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시장에서 인재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틈

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계명대학교의 PLM(제품수명주기 관리) 시스템 관리 전문가 과정이나, 영진전문대의 실내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들 과정에서는 해당 직업 노동시장의 새로운 인력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는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교육과정 설계 단계부터 직업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산학협력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좋아야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연계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대에서는 산학협력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실습을 강화하면서 학생 취업실적 제고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밭대에서도 가족회사(산학협력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역 강소기업 등 근무여건이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로써 현장실습이나 채용설명회를 추진해 높은 취업 연계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듯 대학과 산학협력 가족기업, 또는 협약기업의 경우처럼 대학과 산학협력 기업 간의 강한 연계고리가 산학협력 교육과정과 결합될 때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산학협력 교과과정에서 현장학습이나 현장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이번의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과정 성공사례에서는 대부분 현장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의 취업 연계 면에서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장 실습이나 학습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효과보다는 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의욕을 높이고, 향후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고 취업 문턱을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성공사례의 시사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학생 대상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취업연계를 통해 졸업생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진로를 잘 설계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성공사례 분석에서는 이러한 대학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원하는 직업에 취업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희망직업 분야에 맞는 진로설계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차원의 진로설계가 아니라, 전공이나 희망직업에 맞는 맞춤형 진로설계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대학생 진로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대학일자리센터에서 그 대학 학생들의 전공 특성과 산학협력 기업, 취업경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직업컨설턴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실제로 전공 맞춤형 진로지도나 현장학습 기업과의 연계, 취업지원 상담을 대부분 직업컨설턴트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직업컨설턴트가 해당 대학의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하고, 채용 희망기업과 산학협력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실습이나 취업알선을 잘 해야 취업 연계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대학일자리센터와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조직간 연계효과를 높이는 것이 대학생 취업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일자리센터와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은 학생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취업지원이라는 사업목표를 공유한다. 그런 만큼 두 사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고 사업조직 간 협력이 잘 이뤄질수록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효과성은 높아질 수 있다.

## IV.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고용서비스사업의 정책과제

### 1. 노동시장의 직업수요에 맞는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 추진

대학의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 노동시장에서 인재공급이 부족하거나 잠재적 수요가 확인되는 직업을 타깃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진학률이 7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든 치열한 취업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인재공급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에서 대학생들이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 노동시장에서 공급부족이 나타나는 분야, 새롭게 인력수요가 증가하는데 대학의 일반적인 전공학과에서는 양성하지 않고 있는 직업분야를 타깃으로 해당 직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직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의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이 대학생들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발판이 되려면 먼저 직업 노동시장의 틈새 공략을 위한 시장 내 수요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 전공학과를 직업 노동시장 분류로 본다면, 중분류 노동시장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학

협력 인재양성 사업이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 노동시장에서 세세분류를 기반으로 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어떤 직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그 타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이러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기업과 공동으로 인재양성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가 이뤄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의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직업노동시장 수요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업 전문인력 양성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평가해서 이런 노동시장 수요분석이 잘된 대학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전공학과와 기업의 필요를 반영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으로 학생 취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학과와 산학협력 기업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네트워크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설계부터 현장실습, 취업연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그만큼 대학과 산학협력 기업과의 연계 네트워크는 졸업생들이 취업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과 산학협력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졸업생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대학의 전공학과나 분야별로 취업 지망 업종의 기업들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는 전공학과별로 산학협력 기업을 발굴하고, 산학협력 기업의 인재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산학협력기업의 필요를 반영하는 상호 이익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지역의 중견 유망 중소기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졸업생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전공학과 교수나 산학협력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산학협력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과 산학협력 기업 간의 네트워크는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상호협력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으로 학생 취업을 연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산학협력 교과과정과 연계된 현장학습이나, 현장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학협력 인재양성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전공학과별로 산학협력 기업에서의 현장학습이나 현장 직무체험형 교육과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인재양성과정에서 이러한 현장 중심 학습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공학과별로 관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의 필요를 반영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학습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지속적으로 현장학습에 협력하고, 현장학습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과 현장학습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대학일자리센터 전문인력 고용안정과 고용서비스 전문성 강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학생들의 전공특성을 살려 진로지도를 하고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컨설턴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 컨설턴트가 취업연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전공학과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런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어떤 경로로 취업을 하는지, 또, 졸업생들이 취업할 만한 괜찮은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등과 관련해 풍부한 현장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직업상담 컨설턴트로서 지닌 경험적 지식은 하루아침에 공부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고, 대학일자리센터에서의 많은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전문 영역이다.

대학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 컨설턴트가 해당 대학에서 고용서비스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한 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가 갖춰져야 해당 컨설턴트가 소속 대학의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하고, 채용 희망기업과 산학협력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4. LINC+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상호연계와 협력 시스템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모두 졸업생의 취업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만큼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상호 협력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가 같이 있는 대학에서 두 사업간 상호 사업연계나 조직적인 연계 활동을 보면 대학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 산하에 대학일자리센터를 배치하거나,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단 대표가 대학일자리센터장을 겸직함으로써 두 사업 간 연계효

과를 강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대로 두 사업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에서 전자처럼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조직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두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상호 협력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 현장실습 기업의 섭외, 산학협력 기업과의 네트워크 관리, 대학 졸업생의 취업 연계 효과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향후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 사업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조직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졸업생 취업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KU**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1),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9),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례집 『청년의 미래 경력설계와 취업지원 대학일자리센터가 함께 합니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교육부(2013. 5. 6), 『산학협력 선도대학·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 교육부·한국연구재단(2018), 『2018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증점형 우수성과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 이성희·오선정(2021), 『대졸 청년들의 효과적인 노동시장 이행방안 연구: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용욱(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 산학협력 고도화형을 중심으로」, 『THE HRD REVIEW』 1월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LINC+ 홈페이지(<https://lincplus.nrf.re.kr>)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